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⑤

의심은 선정 장애, 반야문 굳게 닫혀

五棄疑蓋者 以疑覆心故 於諸法中 不得信心 信心無故 於佛法中 空無所獲 譬如有人 入於寶山 若無有手 無所能取 然則疑過甚多 未必障定 今正障定

다섯 번째로 의심의 번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의혹은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혹심이 있으면 불법에 있어서 올바른 신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의 위없는 지견을 잃게 된다. 그 때문에 의심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의심은 단지 뭇 악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업을 선도하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가령 그 예를 선정에서 화두를 관하는데 비유해보면 우선 의심이 일어나게 해야만 하는데, 이럴 때의 의심은 공부하는데 보배가 된다.

이를 두고 선종에서는 크게 의심하면 확철대오하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심이야말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 공로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의심이 아니라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번뇌로서의 의심이다. 때문에 이 의심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원력에서 물러나게 하여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오묘한 법에서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불법대해는 신심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모체이며 일체 모든 선근공덕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였다.

만일 신심이 없다면 불법 가운데서 얻을 것이 없다. 신심이 아니면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유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해도 뿌리없는 나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무리 광대하다 해도 신심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마치 뿌리없는 나무와 같아서 광대하기 그지없는 부처님 바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과 같이 광대하게 법비가 쏟아져도 신근이 없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억겁을 지난다 해도 조그마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보배산으로 들어가 보배를 가지려 하나 그에게 손이 없다면 끝내 보배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보배를 취할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이다.

신심이 없는 자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손은 '신심'에 비유하였고 보배산은 '불법보장'에 비유하였다.

불법의 보배창고란 무엇인가. 삼명(三明)·육통(六通)·사제(四締)·육도(六度)·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십력(十力)·사무소외(四無所畏)·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등이 모두 여래의 보배창고이다. 그렇다고 해도 신심이 없다면 광대한 불법가운데서 실제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선근 개발되지 않아
스승이 청정하지 못해도 부처님이라 여겨야

疑者有三種 一者疑自 而作是念 我諸根闇鈍 罪垢深重 非其人乎 自作此疑 定法終不得發 若欲修定 勿當自輕 以宿世善根難測故

의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행인이 단정히 앉아 지관을 닦을 때 마음속으로 문득 "나는 지금 선근은 미약하고 죄장은 무거워 도를 이룰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최상승을 바라보며 이 도법을 닦을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의심을 한다면 선정법은 끝내 개발되지 않는다. 선정을 닦을 때는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수행인이 꼭 알아야할 점은 내가 무량겁이래로 어찌 대발심을 하지 않았겠으며 대승의 수행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단정코 과거에 이미 선근을 심었으리라고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선근을 심지 않았다면 금생에 어떻게 사람의 몸을 얻게 되었겠는가. 일체 성현들 모두가 처음에는 범부에서 출발해서 성취하였고, 시방제불도 중생의 몸으로부터 성취하였다. 따라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미륵보살은 결코 없으며, 자연적으로 성취된 석가부처님도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았다면 자기가 과거에 심은 선근이 깊고 후하다는 것을 마땅히 믿고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들 모두는 여래의 진실한 장자들이다. 이에 따라 대용맹심을 일으켜 뛰어난 불법을 정진 수행한다면 불과를 증득하지 못할까, 또는 열반을 얻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二者疑師 彼人威儀相貌如是 自尙無道 何能教我 作是疑慢 卽爲障定 欲除之法 如摩訶衍論中說 如臭皮囊中金 以貪金故 不可棄其臭曩 行者亦爾 師雖不淸淨 亦應生佛想

두 번째로 스승을 의심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타인을 의심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친근하게 여겼던 대덕선지식의 위엄과 의표를 관찰해 보았더니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도를 깨닫지 못한 일반사람과 차이가 없어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라고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지식을 관찰하고 그 자신에게도 이미 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교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를 성취시키려면 타인까지 성취시키려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없는 그가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명의 장님이 여러 장님을 인도하여 다함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까봐 염려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스승을 섬긴다면 해로움만 있지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의심과 교만심이 마음속에 일어나 바로 선정을 장애하여 선정의 문이 열리지 않고 반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된다.

스승을 의심하는 법을 버리려 한다면 마하연론에서 "악취가 나는 가죽부대 속에 황금이 있는데 그 악취 나는 가죽부대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황금까지 버려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명심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행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스승은 악취 나는 자루에 비유했고, 그 스승이 행하는 설법은 자루 속에 든 황금에 비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외형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법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허망하게 비판하고 장단점을 자기 멋대로 논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크게 어리석고 미친 무리라고 부른다.

여러분들도 옛날 성현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구했던 일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령 설산대사는 귀신에게 법문을 청하였고, 제석천왕은 짐승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따라서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모든 부처님 숫자에 하나의 부처로 속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그가 비록 몸은 범부이지만 입으로 하는 말은 모든 부처님 법이고 모든 부처님의 행인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부처님을 보는 마음으로 스승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 대하듯 스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옛 큰스님은 "스승의 외형은 비록 청정하지 못하다 해도 그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1) 색온(色蘊)

'색온'은 오근(五根)·오경(五境)·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을 합하여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오근은 안이비설신근(眼耳鼻舌身根)을, 오경은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을, 법처소섭색은 극략색(極略色)·극형색(極逈色)·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수소인색(受所引色)·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을 말합니다.

색온은 안으로는 우리의 육신인 근신(根身)과 밖으로는 기세간(器世間), 즉 우리의 식이 내적으로 의지하고 외적으로 연려(緣慮)하는 모든 인식대상경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색법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는 형질의 장애[質碍]와 상대적인 마주함[有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며[方所示現], 세 번째는 고정불변적인 사물이 아니라 찰나찰나 소멸하는 의미[觸動]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에 떠오른 모든 색법과, 공간적으로는 일체의 자연현상계와 우리의 육신과 의식 속에 떠오른 관념적인 모습인 모든 상상 속의 물질까지도 모두 합해서 한 덩어리로 색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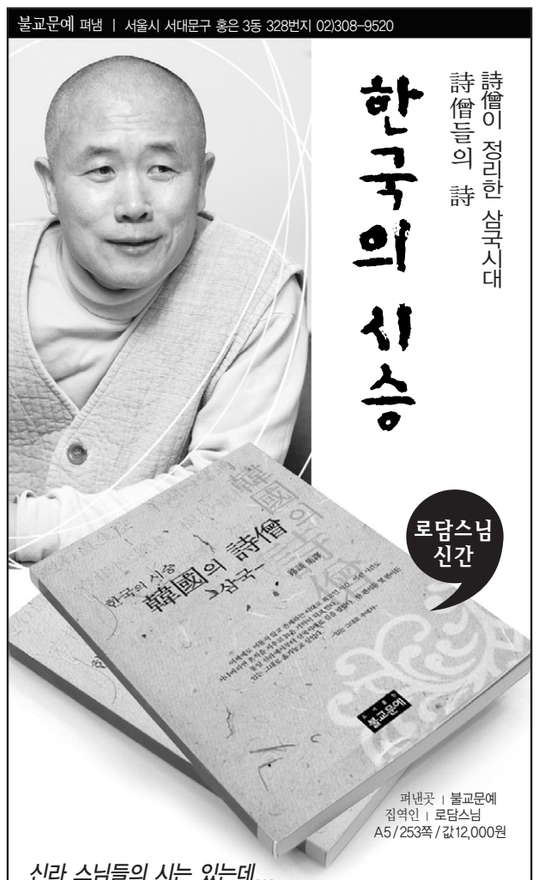
근신·기세간등 모든 인식대상경
의식 속에 떠오른 물질까지 포함

우리의 신체는 실제로 따로의 특수한 색법이 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래 자연현상계의 한 특수한 개체적 부분으로서의 색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잘못 미혹하고 자기의 육신만을 따로의 실재인 양 집착하여 이를 내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자연현상계가 나의 밖에 따로 존재해 있는 나와는 별개의 색법이 아닌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주전체의 이치를 안다면, 자기의 한 몸이 광대한 자연현상계에 끼어든다 해도 왜소하지 않고, 전체가 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장애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한 몸에 모든 자연현상계의 사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었지만 광대하여 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다상즉(一多相卽)의 논리입니다.

이처럼 대소의 상대적인 견해가 쌍으로 없어져 그것이 전체다, 또는 한 부분이다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모두 함께 끊기면 대상과 내가 하나의 절대자체로 동화하여 끝내는 진리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이고득락의 경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詩僧이 정리한 삼국시대 詩僧들의 詩
한국의 시승

펴낸곳 | 불교문예
집역인 | 로담스님
A5 / 253쪽 / 값12,000원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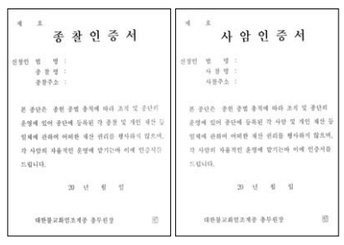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선상용왕재 및
고혼천도 수륙대재

대한불교 조동종에서 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부처님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들 뿐만아니라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 행 지 : 석도 – 연태 – 제남 – 태산 – 곡부 – 문상 – 유방
◈출발일자 : 불기 2552년 3월 24일(음 2월 17일) 월요일 ~ 3월 29일(토요일) 까지
◈출발시간 및 장소 : 인천 제 2여객터미널 로비집결 오후 3시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동 참 금 : 1인당 60만원 (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주) 풍 경 여 행 사
문의 02)2091-0408 / Fax 02)951-0480